

#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들 무안서 '체험 삶의 현장'

### 1사1촌 협약 구로마을 방문 30명 김발 이식 일손 돕기 특산물 구매 등 상생 노력

“몇 장 들어있지 않은 김이 왜 이렇게 비싸지하며 사서 먹었는데 막상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 전혀 비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먹는 김이 이렇게 힘든 작업을 거쳐 생산되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일하면서 이렇게 귀한 김을 많이 사먹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가 지난 8월 1사1촌 협약을 맺은 무안구로마을을 찾아 어민들과 함께 '김발 이식 작업'에 나섰다. 노사에서 각각 15명씩 모두 30명이 참여해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전남 어촌을 찾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성호 사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며 직접 김발을 손질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광주의 근간이자 모태가 되는 전남 어촌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다”며 “어민들이 반겨주시니 더 기쁘게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양식을 위해 이달 들어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일하고 있는 무안 구로 어민들은 도시에서 찾아온 자원군을 반갑게 맞이했다.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김 수확에 나서는 무안 구로마을은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지주식 김'이다. 쌀물에 바닷물 밖으로 나와 햇빛에 노출되는 지주식 김은 바다 위에 김발을 펼쳐놓는 부유식에 비해 그 맛이 고소하고 담백해 인기



24일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 직원들이 1사1촌 협약을 맺은 무안 구로마을을 찾아 어민들과 함께 '김발 이식 작업'을 돕고 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를 끌고 있다. 정경태 무안 구로마을 어촌계장은 “요즘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었는데, 공사에서 이렇게 마을을 찾아주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마음을 전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역사 가운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골라 전남 어촌에서 생산되는 수산가공식품 판매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안 구로마을, 광주도시철도공사, 전

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난 8월 21일 잘사는 전남 어촌과 어민 삶의 질 향상, 어촌과 도시의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서 무안 구로마을은 광주도시철도공사·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협약기관과의 교류, 방문하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약속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무안 구로마을의

특산물 판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급적 일정량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무안 구로마을에서 휴가, 주말, 연휴 등 비업무일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무안 구로마을의 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개발 및 제조 등 6차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식도락 여행 '미식 산책'에 물어봐

시 홈페이지·모바일앱 한·영·중국어 서비스

광주시가 육전, 생고기, 보리밥 등 '광주'의 식도락 여행길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하는 도시홍보 모바일북 '광주 미식 산책'을 내놓았다. 올 연말에는 광주도시여행을 배포할 예정이다.

광주 미식 산책은 맛(Taste), 산책(Walk), 머뭍(Stay) 등 3가지 섹션으로 나눠 글과 사진을 싣고, 대표 장소의 위치 정보와 연락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맛(Taste) 섹션은 떡갈비, 한정식, 오리탕, 보리밥 등 광주 5미(味)를 비롯한 광주의 다채로운 맛, 산책(Walk) 섹션은 무등산 일대의 자연환경을, 머뭍(Stay) 섹션에서는 광주 여행 중 편안히 쉴 수 있는 숙소(게스트하우스) 정보를 담았다.

시의 관광·투자유치·우호협력 등 영

무 추진 시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광주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한글, 영문, 중문 등으로 제작했다.

광주 미식 산책은 광주시 홈페이지, e빛고을광주, 광주문화관광포털, 광주시 모바일앱,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광주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북은 종이책으로도 인쇄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시청 홍보관 등에 비치되고, 광주시의 각종 대내외 행사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구종천 시 대변인은 “광주 미식 산책'에 이어 여행객들이 광주의 대표 랜드마크를 통해 광주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돕고, 광주시의 각종 대내외 행사에도 지원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베이징 유명 박물관 일행 광주 방문

한·중 수교 25년 기념공연

세계적인 인류학 박물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북경중화민족박물관이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차오원 부원장과 공연단 등 15명이 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를 방문한다.

중국 정부가 공인한 AAAA등급의 북경중화민족박물관은 중국의 56개 민족의 문화와 문물, 사회생활을 복원해 수집하고 연구·전시하는 인류학 박물관이다. 24일에는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내몽고자치구 설립 70주년을 기념해 몽고족을 주제로 사진전을 열고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가무와 기예를 공연했다.

북경중화민족박물관은 이번 방문 기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과 향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 등을 찾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국제사회에서 G2로 부상한 중국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역점시책으로 선정,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북경중화민족박물관은 시와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의 공동 초청으로 이뤄졌다. 시는 오는 11월 현재 운영중인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광주 차이나센터'를 개소해 중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서 전시장운영자협회 임시총회 개최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는 지난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마이스(MICE) 산업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시산업발전 및 전시장 운영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의 약자다. 올해 6월 김대중컨벤션센터 신환설 사장이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광주에서 개최된 이번 임시총회에는 KINTEX, COEX, BEXCO, EXCO, ICC제주, HICO, 대전마케팅공사, SETEC 등 9개 회원사가 참가했다.

협회에서 추진 중인 '전시산업발전 및 전시장 운영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최

종보고회에서는 전시장 적정 가동을 분석, 적정 임대료 정책, 전시장 신·증축 심의기준 개선방안,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방향, 전시시설 개발 및 효율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는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주요한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지난 2004년 설립된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는 전시산업계를 대표하고 있으며, 김대중컨벤션센터, 킨텍스, 코엑스, 벅스코 등 국내 11개 전시컨벤션센터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국내 전시컨벤션센터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MICE 산업 트렌드와 현안을 공유하고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반영에도 협력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외국인 홈스테이 “어서와 광주는 처음이지?”

참가 가정 수시 모집

광주시에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일반 가정집에서 숙박하면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는 지난 2009년부터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와 지역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됐다. 현재 등록된 호스트 가정 1326곳이다.

호스트 가정은 가족 중 1명 이상이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고, 손님용 방(침구 포함)과 석식, 조식을 제공하고 인종·종교·문화적 편견이 없는 가정이면 누구나 호스트 가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가정은 하루 기준 1인당 5만원의 봉사료를 지원받고 자원봉사 실적 적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스트로는 소속과 신분이 분명한 외국인을 추천하며, 최근에는 전남대, 조선대 등 단기 방문학생, 교환학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호스트 가정을 위한 소양교육으로 '세계 문화의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전통문화체험, 음식시식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최근 한류열풍으로 한국방문이 많아진 우즈베키스탄 편이 진행될 예정이다. 홈스테이와 '세계문화의 이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광주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www.gic.or.kr) 또는 전화(062-226-2733)로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북경중화민족박물관이 24일 광주시청 1층에서 몽고족을 주제로 한 사진전과 전통가무·기예공연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h3>영광 전원주택 매매</h3> <p><b>전원주택</b> 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가 가능 <b>최근 리모델링 완료</b></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b>1억3천만</b> 매가 <b>9천8백</b></p> <p><b>직매 010-6670-9800</b></p>	<h3>수기동 상가 매매</h3> <p><b>천변로 전망최고</b> 20층 중 6층</p> <p>45평 (주차완비) 고급시설 (리모델링 5천만투자)</p> <p>보 1천 월 60만</p> <p>시세가 <b>1억 5천</b> 매가 <b>9천7백 (용5천)</b></p> <p><b>직매 010-6670-9800</b></p>	<h3>경매 (주)대신경매</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구 총창로 (4층 상가건물) 토지 215평 건물 157평 금남로 4가역 1분 (대형 주차장있음) 감정가 11억 → 최저가 8억8천</li> <li>2) 광산구 월곡동 (상가주택) 토지 51평 건물 134평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6천</li> <li>3) 금남로 16층 (상가건물) 토지 488평, 건 6,000평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40억</li> <li>4) 동구 서석동 (주택) 토지 153평 건물 50평 서석초, 동구청 1분 (조선대 3분) 감정가 4억9천 → 최저가 4억9천</li> <li>5) 나주 경현동 (4층 상가 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위치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9억9천</li> <li>6) 전주시 완산구 전통 (3층 상가건물) 토지 288평 건물 528평 한옥마을 인근 (월세 1천만 이상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40억</li> </ol> <p><b>010-7384-7800</b></p>	<h3>경매교육</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li> <li>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li> <li>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인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li> </ol> <p><b>전문직업 컨설팅반 (프리 1년반)</b></p> <p>(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p> <p><b>010-6670-9800</b></p>
---	--	---	--